

# 별별신문 39호

| 발행일자 | 2018년 4월 24일

| 발행인 | 용, 유나, 별, 달래, 차차, 헛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Metoo #Withyou 멈추지 않을 우리들의,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투 이어말하기에서 낭독한  
성판매경험여성 두 분의 미투 글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미투 하나 | 23살 봄, 강간을 당했다. 20살이 되고 대학을 다님과 동시에 프리랜서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쪽 민고 따르던 회사 과장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날 밤 당했던 모든 폭행은 내겐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웠고, 난 지독히도 더럽혀졌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는 당시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우울증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달았다. 남동생이 카드빚을 몇백만 원 정도 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을 엄마가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갚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어머니와 동생은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음습한 지하 빌라에서 임시로 살게 됐다. 엄마가 전화로 매일 이런 것을 나에게 털어놓을 때, 나는 이 모든 걸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그러던 와중 온라인 알바 사이트에서 시급이 높은 모던 토키바 알바 자리를 보게 되었고 나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그곳은 일명 ‘아가씨’가 나오고 술을 파는 노래방이었다. 하루는 실장이 한 노래방의 작은 방으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 오늘 일은 어땠는지 등을 간단하게 묻더니 갑자기 나를 제압하며 노래방의 소파로 나를 눕혔다. 그리고 내 팬티를 벗기더니 손을 넣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내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다른 한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하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오늘의 페이를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조건만남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실장이란 사람이 나에게 원래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일을 잘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자신과 한차례 섹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어떠한 페이 지급 없이. 내가 깜짝 놀라며 진짜냐며 의심을 하니 그런 나를 오히려 초보 취급하며 빨리 차를 돌려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강제로 나를 눕혀 거침없이 나를 강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더욱더 나의 몸과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 갔다.

지금은 정말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반성매매 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어 유흥 업종의 일을 모두 그만두었고, 매주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

### “나는 아직 살아가고 있다”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 을 찾아주세요!

화톡

미투 둘 | (중략) 지난주에는 룸으로 출근했습니다. 미투가 유행이라고 룸으로 오는 손님들마다 꼭 한 마디씩 해요. 어떤 방에서는 손님이 같이 들어간 언니한테 안희정 고발한 비서 닮았다며 미투 닮았다고 비아냥 거렸어요. 미투 개 이쁘지도 않던데 한 몫 잡으려고 쇼하는 거다. 여자들이 무섭다. 보지가 벼슬이다. 개도 보지 팔아서 안희정 비서할 수 있었던 거다. 안희정이 미투한테 잘해줬어야 했는데 소홀하게 대해서 빠져서 저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언니들의 가슴을 만지면서 너도 미투 올릴 거냐고 미투 당해보고 싶다고 미투 올리라고 했습니다.

성판매자는 미투 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돈을 지불했으니 이 시간에는 뭘 하든 성폭력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성판매자지만 룸에서 손님들이 저에게 한 짓. 하지 말라고 막는데 억지로 옷 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추행한 것, 어차피 벗을 건데 왜 가리냐며 치마를 들춰 비웃은 것, 애프터 올라가기 전에 세워보라고 손을 잡아끌어 고추를 잡게 하고 놔주지 않은 것 모두 다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고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어떻든 섹스 경험이 얼마나 있든 어떤 공간에 있든 폭력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들 성판매자는 이렇게 대해도 되는 다행은 애다. 보지는 남성들이 갖고 있는 자원에 접근하게 해주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 대가를 지불하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런 인식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그건 서로 좋았던 섹스나 합의된 섹스가 아니라 폭력이었다고 고발하는 건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돈이 부족했나? 보지와 교환한 자원이 부족했나? 그래서 저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 여성은 여성이 되는가. 왜 여성은 보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자원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며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이기에 보지가 자원으로 통용되며 보지의 접근을 몇 명에게 허락하는 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왜 이제 와서, 꽃뱀 짓이라고 의도가 있을 거라고 비난하지만, 미투 운동은 보지로 한 몫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보지로 한 몫 뜯어낼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보지로 한 몫 뜯어내고 싶지 않아. 보지로 한 몫 뜯어낼 수 있는 사회는 너무 이상해. 저는 배움의 기회가 공평한 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역량을 갈고 닦아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 나는 인간이다! 새끼들아

## 여성을 희롱하고 여성 혐오를 동원하며 남성 연대를 공고히 하는 이 사회에 미투 걸 테다.

### 무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일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이룸 상담소 02-953-6279**